제17차 정기총회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2월 25일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민병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反)기업적, 반(反)시장경제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 ’이며, 특히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 등 방송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2005년 중점과제로 합리적인 광고거래질서 구축 및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 자유시장경제 정착 및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광고에 대한 인식 제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처 및 통합마케팅의 최적화 실현, 광고인의 전문화 및 마케팅 능력 배양, 회원사업 내실화, 그리고 회원 권익보호 및 광고산업 조정자로서의 대외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협회의 감사를 맡았던 애경산업 안용찬 대표이사의 뒤를 이어 남양유업의 김승수 대표이사가 새로운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두산산업개발 민경훈 부회장 등 협회 회원사 경영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83회 연합뉴스 초청 회원간담회

지난 3월 17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83회 한국광고주협회 회원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협회 민병준 회장을 비롯, 세스코 전순표 회장,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사장, 동아오츠카 조기창 사장 등 협회 회원사 대표 및 홍보광고담당 임원들과, 연합뉴스 장영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 · 편집 간부진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영섭 사장은‘ 방송통신 융합과 뉴스통신사의 진로 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기업은 국가경제를 일으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이 같은 노력을 제대로 알려 국민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05년도 제1차 KAA저널 편집위원회의

지난 2월 24일 롯데호텔에서는 2005년도 제1차 KAA저널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호에 대한 리뷰 및 편집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새로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이정희 웅진씽크빅 부장, 임성빈 LG전자 부장, 유성노 LG 부장과, 연임한 김상훈 인하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부장, 이준희 동아제약 팀장, 한광섭 삼성 부장에게 2005년도 편집위원 위촉장이 전달됐다.

2005년도 제1차 광고위원회, 홍보위원회 개최

2005년도 제1차 광고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롯데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년 동안 협회에서 진행할 주요사업(방송매체 수용자조사, 극장광고현황조사 및 광고효과 검증 연구, 미디어렙 경쟁도입의 영향 평가 등)과 전문 광고인 배양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1차 홍보위원회는 4월 8일 롯데호텔에서 윤승진 MBN 보도국장을 연사로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방송광고제도 및 법규에 관한 연구』 발표

한국광고학회(회장:서범석)는 지난 2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세미나에서“ 방송광고제도 및 법규에 관한 연구 ”및“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 제고 방안 ”을 주제로 연구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8차 인터넷 마케팅 포럼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회장:이상경)는 지난 3월 3일 역삼동 포스틸타워 이벤트홀에서 제8차 인터넷 마케팅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의 인터넷광고 동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코마코 공은하 부장(엘지이숍 최저가 신고제 온라인 광고사례), 디킴스커뮤니케이션 양현숙 실장(2004 IMC 성공사례-cokeplay.com 캠페인), 나인후르츠미디어 백영호 국장(온라인 슈팅게임 피망 SF런칭 캠페인 성공사례)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행사장에는 기업체 마케팅 담당자 및 기획자, 인터넷 마케팅업계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처음으로『광고 · 홍보 연구모임』창립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3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광고 · 홍보 연구회 ‘ 일파만파 ’(가칭)』의 창립모임을 가졌다.『광고 · 홍보 연구회』는 손봉숙 의원실의 정책자문기구 형식으로 출범해, 손봉숙 의원과 서범석 교수(한국 광고학회 회장,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인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향후 연구모임의 활동계획과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현 광고정책, 법 제도의 문제 파악 및 대안 마련
2. 미디어렙과 관련한 정부의 광고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3.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통합 광고법안 연구 및 제안
4. 광고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홍보정책, 제도 연구 및 대안 제시
5. 향후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광고, 홍보 관련 시민 참여운동의 확산

한편 3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손봉숙 의원실과 한국광고학회 공동주최로 ‘ 공익광고의 현황과 정책과제 ’라는 주제 아래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공익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운영방법,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광고산업 전망』 세미나

지난 3월 18일 단국대학교 서관에서 한국광고학회 주최, 한국방송광고공사 후원으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광고산업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디지털미디어의 출현으로 파생된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광고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광고 법규, 디지털시대의 사회자본이 광고회사 취급고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시대의 광고표현 전략으로서 공명효과, CATV 광고 시청률과 노출효과 분석 등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했다.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찾아서』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특별 세미나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김완석)는 지난 3월 24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연구소에서 미국 하버드대학 석좌교수 제랄드 잘트만 교수를 초대해 은유마케팅과 은유유발기법(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의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해 강연했다. KAA